

전북 농수산물, 수도권·글로벌 시장 공략 나선다

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서 도내 18개 우수기업 공동 프로모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이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26)'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선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푸드 2026에서 공동 프로모션관을 운영하며, 도내 우수 식품·수산업 18개사와 함께 수도권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 사업은 '2026년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사업'과 '2026년 전통신용식품유통성숙화지원사

업 및 농식품기업통합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도내 유망 식품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대형 바이어와의 상담 및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 프로모션관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농·수산 가공식품 기업 18개사가 참여해 지역 특색이 담긴 다양한 제품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전통식품 및 농식품 통합마케팅 색션에는 에이치온, 밥강도, 익산농협 떡방앗간,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귀리귀인, 단야푸드앤바이오, 남영제약, 지리산맑은물춘향골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국수류와 떡류, 추어탕, 발

효식품 등 전북의 전통성과 건강 가치를 담은 제품을 소개한다.

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색션에는 다해식품, 동이식품, 어이딸부각, 식도락푸드, 아리울수산, 어성호, 옹고집, 이고장식품, 진성식품, 하이오백 등 10개 기업이 참가해 젓갈류와 조미김, 냉동수산물, 부각, 밀키트 등 다양한 수산가공식품과 간편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가정간편식(HMR)과 밀키트 제품군을 중심으로 국내외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며 신규 거래선 발굴과 수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서울푸드 2026은 글로벌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대규모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지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전북의 우수한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대형 유통망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푸드 2026은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산업 박람회로,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생산자·소비자 잇는가교자리매김

전주농협 모악공판장, 개장 30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다짐

전주농협 모악공판장이 개장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 농산물 유통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전주농협은 지난 6일 모악공판장에서 개장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인규 조합장을 비롯한 전주농협 임원진과 중도매인협회장, 중도매인 등이 참석해 공판장의 지난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996년 개장한 전주농협 모악공판장은 지난 30년 동안 지역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하며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와 공



정한 가격 형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참석자들은 공판장이 걸은 성장 과정과 성과를 함께 돌아보며,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더욱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모색

특화단지 기업 간담회 가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8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다목적실에서 '2026년 상반기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새만금항 신항 항만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LS-I&F메타리튬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8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다목적실에서 '2026년 상반기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퓨처그래프, 성일하이텍, 피케이씨, 에코엔드립, 이디엘, 이피랩텍, 모나, 에

프엔에스텍, 퀴텀솔루션 등 도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부위원장,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양선화 국장,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고현웅 민관협력과장 등이 참석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정책자금 지원 확대, 폐수처리 기반시설 구축, 법·규제 개선, 인력 수급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자금 지원사업과 폐수처리 관련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법·규제 개선 과정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을 소개하며 관련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장애예술창작가 회화 초대전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본부 공간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개방하며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6월 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부 행복연극관 로비에서 장애예술창작가 회화 초대전 '마음을 잇는 색채, 함께 그리는 세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시설개방 활성화 사업인 '국민연금 문화공감'의 첫 행사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과 복권위원회가 협력해 마련했다. 전시 작품은 '2026년 전북 장애예술



창작가 아트콜라보 지원사업'에 선정된 회화 작품 25점으로, 전북지역 장애예술작가들의 개성과 감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해당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과 복권위원회가 기획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북 예선 우수농가 4곳 선정

전북농협이 친환경 축산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9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북 예선에서 우수농가 4곳을 선정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5일 열린 6월 정례회에서 '제9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북 예선 우수농가 시상식을 갖고, 전북지역을 대표할 축산농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농가는 △무진장 축산농협 행복농장(대표 양승철·양돈) △고창부안축협 우립농장(대표 김영진·한우) △고창부안축협 한울농장(대표 김상운·육계) △익산군산축협 부곡축산(대표 김흥연·육용종

계) 등이다. 우수농가로 선정된 4개 농가는 전북농협 본부장과 함께 상금 50만 원을 수상했으며, 전북 대표로 '제9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국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평가는 6월부터 7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최종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2월 사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축산환경 개선과 친환경 축산 실천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힘을 계획한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전북대, 전기안전 기술 연구·인재 양성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북대학교가 전기안전 분야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역신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5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지역성장 기반 협력 및 미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발맞춰 전북지역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전기안전 분야 연구성과의 산업 현장 적용과 기술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성장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플랫폼 구축 △기업 수요 기반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핵심기술 공동 연구개발 △시행·분석 장비 등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역산업 연계 취업·창업 프로그램 협력 △연구 성과의 산업 적용 확대 및 기술이전·사업화 연계 협력 등이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별빛자문단' 출범... 청년 50명 위촉

국민연금공단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고객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5일 전주 본부에서 '2026년 국민연금공단 별빛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별빛자문단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로 구성된 국민연금공단의 청년 중심 자문기구로,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고객서비스를 청년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자문단 명칭에는 '청년의 빛나는 생각'이 모여 국민연금의 미래를 밝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자문단 모집에는 총 134명(66개 팀)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0명(23개 팀)이 선발됐다. 자문단은 올해 6월부터 12월 까지 7개월간 활동하며 국민연금의 다양한 서비스와 안내 체계를 청년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